



또 한 해를 보내며

이 승 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한

해가 시작되었는가 싶더니 어느덧 연말이 되었고, 아마 독자들이 이 글을 접할 때쯤이면 이미 해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보면 지난 한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원자력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금년을 돌이켜 볼 때, 국내외를 통하여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국내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북한 공비의 잠수함 침투 사건일 것이고, 그밖에도 이제는 다소 무감각해진 면도 있지만 지금도 진행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재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의 관계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꼽을 수 있겠는데, 우리 현대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12월 12일이 우리 나라가 비준서를 기탁하고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된 날이라는 점이 감회를 새롭게 하기도 한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은 그간 어렵사리 조성해온 우리의 대북 화해와 경제 지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오랜 진통 끝에 최근 급속히 진척되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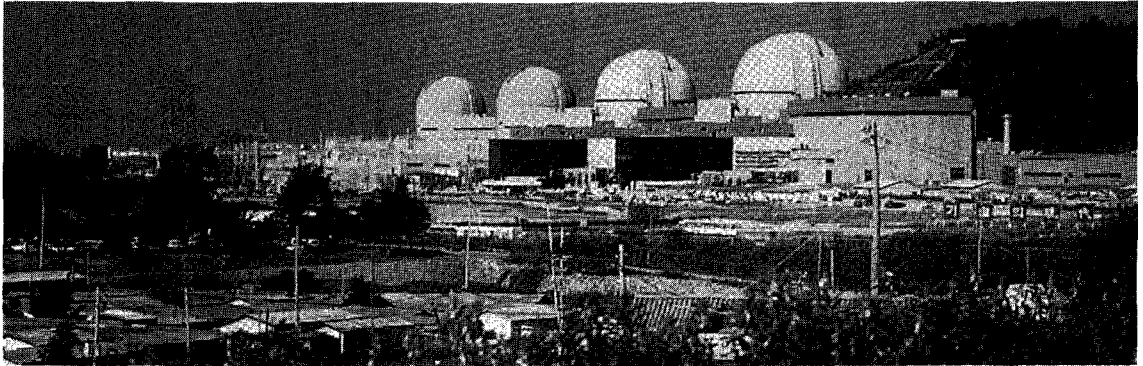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우리

경제 사회 구조가 싫든 좋든 시대적 흐름인 세계화를 향해 계속 나가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지방 자치 행정의 점차 자리잡아감으로써 세계화·지방화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가지 패러다임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원자력 사업 구조와 체제에 대한 변화도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대응이 연초에 불거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재조정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써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사업 성격의 연구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산업체로 이관되는 원자력 사업 체제 조정 방안이 대두되어 연중 내내 원자력계의 큰 이슈가 되었다.

우리 나라 지방 자치 시대 개막 이래 최대의 이슈라 할 수 있는 영광 원전 5·6호기 건축 허가 문제가 지방 행정과 맞물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무난히 극복하고 기공식을 가졌던 일도 원자력 사업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뉴스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러나 한해를 돌아 볼 때는 이러한 시끄러운 일들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우리에게 안도를 주기도



영광 1·2·3·4호기

한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던 원자력 안전협약이 사고 10주년 되는 금년에 발효된 것도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또한 연말에는 원자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이 설치되고,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리·발족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촉진과 안전 관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우리 나라가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연말 대선에서 누가 출마하고 누가 세기 전환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될까, 북한 사회가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급격히 붕괴되는 것은 아닐지 등등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들이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원자력계에도 새해에 기대해 볼 일이 많을 것 같다. 우선 지난 95년부터 원자력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 그 틀안에서 원자력 사업 체제 조정을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맞서 전열이 재정비되고, 안

정된 원자력 연구 개발 기금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 전개도 기대되는 바다.

원자력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할 일이 많다.

우선 건설중인 원전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하겠고, 날로 민감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감안하여 운영중 원전의 불시 정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중히 구성·운영토록 해야 하겠고, 수년에 걸쳐 검토해 온 ICRP 60 수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을 위한 작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북 경수로 공급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필요할 것이며, 우리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국제 신뢰 향상을 위해 국내 핵사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사찰 실시도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년도에 연구 완료된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발전 방향을 가다듬어 세부 시행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새해에는 또 무슨 일들이 발생할 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자력계로서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한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우리 원자력계가 이 모든 일들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사업이든 안전 관리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한해를 보내며 기대해 본다. ☺